

“집에서 치료받아요”...고흥군 ‘재가 의료사업’ 순항

의료·돌봄·식사 등 협약기관 4개소에서 9개소 확대 개편 장기입원자 전수조사 통해 대상자 발굴 삶의 질 높여

고흥군의 재가 의료급여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고흥군은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해 온 ‘재가 의료급여’ 사업이 7월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더 나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재가 의료급여 사업은 장기 입원 필요성이 낮음에도 한 달 이상 입원 중인 의료급여 수급자의 지역사회 복귀·정착을 돕기 위해 퇴원 후 의료, 돌봄, 식사, 병원 이동 등 통합 서비스 지원사업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의료급여관리사와 병의원 의료진과의 상담을 통해 맞춤형 돌봄 계획(케어플랜)을 세워 최대 2년간 월 71만원 상당의 의료·돌봄·식사·병원 이동 등 필수급여와 냉난방 용품, 주거환경 개선, 복지 용구를 포함한 선택급여를 제공받게 된다.

지금까지 지원된 서비스로는 의료급여기관 동행 방문, 장애인 활동 보조, 방문 목욕, 반찬 및 식재료 배달, 생활 가전 지원 등 일상 돌봄과 현관 경사로 및 침대 안전바 설치 등을 지원해 집에서 편안한 생활이 가능하도록 도왔다.

또한 6개월 이상 관리 중인 대상자의 의료비가 전년 대비 94%(1억4000여만원)가 감소하는 등 의료급여 예산 절감으로 재정 안정화에도 기여했다.

대상자들도 “병원의 제한된 생활에서 벗어나 집으로 돌아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으나 고흥군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평범한 일상을 누릴 수 있게 됐고, 혼자가 아닌 동반자가 생겼다는 느낌을 받았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재가 의료급여사업 추진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고 계시는 협력 기관에 감사드리며, 7월 전국 확대 시행에 발맞춰 안정된 사업 운영으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해 지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고흥군은 총 3321명의 의료급여 수급자의 바른 건강관리 정착을 위해 지역특화사업(과소이용자관리)과 장기입원자 실태조사, 유형별 심층 사례관리로 의료비 재정 절감과 주민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서비스 지원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송민섭 기자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자 모집 내달 5~16일까지

여수시가 청년들의 주거 불안 해소와 지역 내 안정적인 자립을 위해 ‘여수형 청년임대주택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청년이 임대사업자와 전세 계약한 주택의 임대보증금을 시가 전액 지원하여 정착을 돕기 위함이다.

지원 자격은 여수시 거주 중 또는 거주 예정인 18세 이상 45세 이하 청년이거나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 무주택이어야 한다.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고,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9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기준중위소득 150%: 1인가구(334만2668원) 2인가구(552만3914원) 3인가구(707만1986원)]

모집 기간은 8월 5일부터 16일까지 2주간이며, 여수시청 누리집 고시공고에 게시된 신청서를 작성하여 여수시청 건축과(061-659-4092)를 방문하거나 등기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이후 시는 자격 충족 시 공개 추첨을 통해 17세대를 모집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청년들에게 가장 부담이 되는 주거비를 경감시켜 실질적인 도움이 됐으면 한다”며 “2028년까지 ‘청년임대주택 200호’를 공급하여 청년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여수=이경기 기자

거제시 바다로 세계로 축제 개막식 김순호 구례군수 참석

김순호 구례군수는 지난 26일 상호 결연도시 거제시 거제해양레포츠센터에서 개최된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 개막식에 참석했다.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는 천혜의 바다 자원과 짜릿한 해양스포츠, 문화예술공연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전국 최대 규모의 해양 축제로 지난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했다.

개막식에 참석한 김순호 구례군수는 “거제 바다로 세계로 축제를 진심으로 축하하며 4년 전 구례군에 큰 수해가 났을 때 거제시민 및 시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수해 복구를 할 수 있었다며 이 자릴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개막식 참석 전 박종우 거제시장과 만남을 통해 시민들을 생각하는 박시장의 시정철학에 대해 깊이 감동하였으며 거제가 해양의 도시, 대한민국의 도시로 우뚝 서겠다는 기대를 하게 되었다”고 말했다.

구례=김상현 기자

보성군 ‘꿈나무, 문화 체험의 날’ 겸백면희망드림협의회

보성군은 겸백면희망드림협의회(공동위원장 임운모·박형식)가 지난 27일 주암담 주변 지역 지원사업 일환인 ‘사랑의 연결고리 사업’으로 관내 학생들을 대상 ‘꿈나무, 문화 체험의 날’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지리적 여건으로 문화 활동의 기회가 적은 시골 아동들에게 문화 혜택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다양한 체험 활동을 통해 창의적인 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사회적 소외감 해소 및 추억을 만들어 주고자 마련됐다.

체험 학습에 참여한 한 아동은 “전주 초코파이 모양이 왜 엽전 모양인지 전통을 배우면서 만들어서 너무 재밌었다”며 “한복 체험, 연극관람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돼 너무 좋고 행복한 추억이었다”고 말했다.

박형식 위원장은 “여름방학을 맞아 이번 사업을 추진하여 아이들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니 보람이 크다”고 전했다.

임운모 겸백면장은 “이번 활동을 위해 따뜻한 관심과 정성을 쏟아준 지역사회 보장협의체 위원님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송민섭 기자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김진우)이 여수 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복날 맛이 삼계탕 400인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여수시 제공

여수 향일암·보문복지회, 영양 가득 삼계탕 나눔 행사

여수시노인복지관(관장 김진우)이 여수향일암과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의 후원으로 마련한 복날 맛이 삼계탕 400인분 나눔 행사를 가졌다.

지난 26일 성산공원에서 열린 이날 행사에는 정기명 시장, 백인숙 시의회의

장, 보문복지회 이사장 연규스님, 복지관 관계자 등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 시장은 삼계탕을 비롯해 과일, 떡 등 푸짐한 점심 식사 대접에 일손을 보탤다.

정기명 시장은 “우리 지역 어르신과 점심을 함께하며 소통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며 “지역사회의 따뜻한 정을 나누는 일에 동참해 주신 향일암 주지 연규스님과 복지관 종사자들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사회복지법인 보문복지회는 2005년부터 여수, 순천, 구례 등 12개의 복지기관을 직영 및 위·수탁하고 있으며 산하의 450여 명 직원들이 불교복지를 펼치고 있다.

여수=이경기 기자

광양·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 간 고향사랑 상호기부 첫 결실

광양 클린오션·포항 조경봉사단

광양시는 지난 27일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나눔스쿨에서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행사를 실시해 광양제철소와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 간 상호기부의 첫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클린오션봉사단’ 30명의 제철소 주변 난초심 수증정화 봉사활동 시작 전 치러졌으며, 단원들에게 고향사랑기부제 취지와 기부자 혜택, 참여 방법 등을 안내하고 현장에서 포항시에 기부하고 상호기부 확산을 위한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으로 이뤄졌다.

같은 시각 포항시에서는 포항제철소 ‘조경봉사단’이 봉사활동에 앞서 단원 30명이 광양시에 기부하여 재능봉사단 간 첫 상호기부가 이뤄져 나눔과 상생의



광양시는 지난 27일 금호동에 소재한 포스코 나눔스쿨에서 광양제철소 ‘클린오션봉사단’의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행사를 실시했다. 광양시 제공

릴레이 기부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이번 상호기부는 지난 11일 광양시와 광양제철소가 상호기부 추진을 위해 포항제철소를 방문해 홍보활동을 펼친 이후 이뤄진 첫 상호기부 사례로 그간 시와 광양제철소가 상생협력을 논의한 끝에 맺은 의미 있는 첫 결실로 보인다.

또한 양 제철소의 재능봉사단이 한낱 한시에 봉사하고 서로의 지역에 상호기

부 활동을 펼쳐 두 자매도시의 우호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는 등 그 의미를 더했다.

한편 이를 위해 광양시는 29일, 31일 광양제철소 재능봉사단장 간담회에 참석하여 상호기부 등 고향사랑기부제를 알리는 시간을 갖고, 포항제철소 재능봉사단장을 대상으로도 홍보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양=인영준 기자

순천명품월등복숭아 체험 행사 수확기 탄저병 확산...전격 취소

순천명품월등복숭아체험행사 추진위원회(위원장 장봉식)는 오는 8월 3일로 예정되었던 제20회 순천명품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수확기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전격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사회회의 의의를 통해 상품성 있는 물량 확보가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행사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 해 이상기온에 따른 냉해 피해로 어려움을 겪었던 월등복숭아 농가는 올해는 저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봄철 방제 약제 살포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풍년 농사를 기대했으나, 예상치 못한 잦은 강우와 습한 날씨로 탄저병이 확산되어 다시 한 번 깊은 시름에 잠기게 됐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지난 25일 월등면 소재 복숭아 농가를 방문하여 농가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도록 여러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으니, 농가 여러분께서도 힘내셔서 함께 난관을 극복하자”고 격려했다.

장봉식 위원장은 “탄저병 확산으로 인해 지난 19회 동안 이어져 온 체험행사가 취소되어 농가들의 아쉬움이 크다”고 전했다. 하지만 “기후변화 등으로 인한 농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철저한 농장 방역과 관리에 집중하여 내년 행사를 준비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시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순천=배서준 기자

QR cod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Jinilbo (전일보). Includes Kakao Talk and E-Mail details.